

인사말과 경과

지난 3월 11일(금)오후, 도호쿠 지방, 간토우 지방 등 동일본 일대를 덮친 마그니튜드 9에 해당하는 국내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해일은 특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등 동일본 해안가를 중심으로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초래했고, 현재, 사망, 실종 약 3만명에 달하는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재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집과 재산을 잃었고, 아직도 불편한 피난소 생활을 부득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과 해일로 인해 큰 손상을 받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오래 동안 살았던 정든 장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성공회에서는 대재해 발생 직후, 관구사무소에 “동일본 대재해 일본성공회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급모금을 전국에 요청했습니다. 또 “도호쿠교구 재해대책본부”(이하 도호쿠교구 본부)와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긴급지원을 했고 필요한 물자를 전국교회에 요청해서 추우부교구센터(나고야)와 도쿄교구 성 안드레 교회에 모아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물자를 각 교구의 협력을 얻어 수시로 도호쿠교구 본부에 운반했고, 그곳으로부터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지의 교회, 신도, 관계시설, 피난소등에 배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4월 1일(금)에 개최된 “제 1 회 동일본 대재해 각 교구 대책본부 담당자 모임(가칭)”(이하 담당자 모임)에서는, 조금씩 라이프라인과 물류도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4월 15일을 기해 물자수집을 종료하고, 도호쿠교구로의 반입도 4월 중에 종료했습니다.

4월 12일(화)에 제 2 회 동일본 대재해 각 교구 대책본부 담당자 모임이 개최돼, 성공회의 지원활동도 다음 단계로 향할 때가 왔다고 공동이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재해 피해의 막대함, 장기간에 걸친 회복, 부흥의 길, 원자력 피해에 대비해 국제적 책임 등을 생각해 재해교구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안됩니다. 피해지가 지닌 고유의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를 존중하면서 일본성공회 전체가 하고 조직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이후는, 센다이틀 비롯해 피해지에 전국으로부터 선출된 스테프와 봉사자를 파송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지원체제를 세우고, 전국적인 협력에 의해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 4월 14일(목)에 있었던 상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후일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부흥본부 운영위원회(가칭)”(이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 월 29 일(금)에 제 1 회 운영위원회가 센다이에서 개최되었고, 센다이 오피스를 열었으며, 이후 활동내용과 체제에 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하에 관해 “피해자 지원 활동 방침”을 책정하고, 일본성공회 각 교회, 관계 단체뿐만 아니라, 타 교파와 해외교회와의 연계와 협력으로, 피해자에 지원활동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력, 또 한 그것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5 월 6 일(목)오전 10 시부터 센다이 기독교회에서 행해진 성찬식을 함께했고, 센다이 오피스를 개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주를 만난지 2011 년 5 월 19 일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나타나엘 우에마쯔 마코토